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신석현**

A Study on Attracting the United Nations Humanitarian Response Depot (UNHRD)

Shin, Seok-Hyun

Abstract

Disasters and crises are spreading across the globe,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isasters in northeast Asia, such as earthquakes in Sichuan, China, and East Japan.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to attract facilities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itarian Response Depot (UNHRD).

Although there are no prior domestic studies, the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intangible benefits, values, and economic outcomes in attracting facilities.

Based on an analysis of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SWOT) of Korea's host environment, using the UN's annual report and Korea's overseas emergency relief data, the study will analyze the status of relevant UN organizations and derive detailed strategies.

In order to attract facilities from the UNHRD, it will be necessary to build and promote a cooperative system with domestic and foreign NGO expert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joint proposals from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long-run, it will be necessary to work closely with the relevant UN agencies to achieve strategic progress.

Key words: UN Humanitarian Response Depot, WFP, humanitarian assistance, SWOT, NGO

▷ 논문접수: 2019. 08. 26. ▷ 심사완료: 2019. 09. 16. ▷ 게재확정: 2019. 09. 23.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9A006)』

** 동명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조교수(제1저자, shshin1957@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United Nations Humanitarian Response Depot, UNHRD)는 유엔기구의 구호 물품과 인도적 지원 장비의 사전배치와 비축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위치한 허브 네트워크를 말한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2019)에서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에 대한 정의,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기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에서 사용하고 있다.

초기 UNHRD는 2000년에 창설되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계식량계획(WFP)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공유자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군사 공항인 이탈리아의 브린디시(Brindisi)로 이전되었다. 성공적인 브린디시의 모델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남미지역에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UNHRD는 전 세계에 사전 배치된 구호 물품의 보관, 검사, 취급 등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국가재해, 빈곤, 분쟁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근접하여 있다.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지역이 기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국제사회에서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2008년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2011년 일본 동북지역의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처해있는 특수한 분단 현실과 북한의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을 대비하기 위하여 UNHRD의 한국 유치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이 부담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유엔 조달시장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에도 UNHRD 설치가 필요하다.

UNHRD의 한국 유치에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 지원 전략에 대한 추진 방향 분석, 관련 유엔기관과의 상호협력, 신규 설치 가능성과 유치조건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UNHRD 유치에 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어려우나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이미지 상승, 그리고 생산·제조 및 물류 관련 분야의 고용 효과,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에의 진출과 유엔기관과 시설 관련 비즈니스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국제기구 유치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개발 협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부산발전연구원(2017) ‘해양 분야 국제기구 부산 유치 전략 마련’에 의하면 일반적인 국제기구 유치는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기획

재정부(2010) 자료에서는 ‘국제기구 집중지’ 조성 시, 상주 인원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생산유발 효과, 고용유발·창출 효과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UNHRD 시설유치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연구범위는 UNHRD와 관련된 유엔조달시장 현황과 조달 물류 시설, 한국이 참여하는 유엔기구와 동북아시아국가의 참여 현황, 한국의 국제기구 유치 현황, 한국의 인도적 추진현황과 추진 방향, UNHRD 거점 요인분석, UNHRD 유치 전략, UNHRD 선정 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 및 유엔조달연감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 현황을 조사하고 SWOT 분석을 통한 한국의 유치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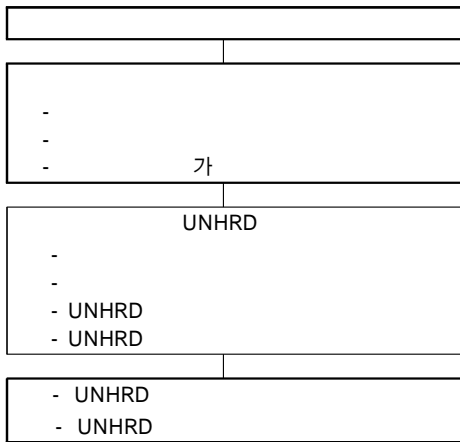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

II. 유엔조달 시장 현황과 물류시설

1. 유엔조달 시장 현황과 물류시설

1) 조달시장 현황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에서는 매년 유엔조달연감(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ASR)을 발행하고 있다. UNOPS(2019)에 의하면 2018년도 유엔 조달시장의 전체규모는 18,785백만 달러 규모로 재화(Goods) 부분이 9,055백만 달러로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서비스부분이 9,730백만 달러로 51.7%를 차지한다.

〈표 1〉은 2015년~2018년 유엔조달시장의 전체 규모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유엔 조달시장 규모 2015~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620	8,709	8,796	9,055
	8,955	9,004	9,826	9,730
	17,575	17,713	18,622	18,785

자료: UNOPS(2019, pp4)

〈표 2〉는 2017년과 2018년, 유엔기구 중 조달 규모가 큰 상위 10개의 기구와 조달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유엔조달 규모(기관별) 2017-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기관명	2017	기관명	2018
UNICEF	3,428.7	WFP	3,497.0
WFP	3,075.3	UNICEF	3,486.0
UNPD	2,746.7	UNPD	2,636.7
UNDP	2,117.0	UNDP	2,146.5
UNHCR	1,239.4	UNHCR	1,100.7
UNOPS	1,068.9	UNOPS	920.9
PAHO	919.4	PAHO	907.8
WHO	666.6	IOM	841.6
IOM	617.6	WHO	735.1
FAO	371.4	UNFPA	400.1
	16,251		16,672.4

자료: UNOPS(2018, pp19), UNOPS(2019, pp19)

2018년 기준, WFP¹⁾, UNICEF²⁾, UNPD³⁾, UNDP

P4), UNHCR⁵⁾이 상위 5개 기구로 나타났다. 2017년과 순위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기구들이 지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의 기구의 조달 규모가 전체 시장의 약 88.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상위 5개 기관의 규모와 주요 서비스를 분석한다.

(1) WFP

UNOPS(2019)에 의하면 WFP의 조달 규모 순위는 2017년 2위, 2018년 1위로 비중이 높은 기구 중 하나이다. 조달 금액은 2017년 3,075백만 달러(재화 1,693백만 달러, 서비스 1,381.8백만 달러)에서 2018년 3,486백만 달러로 13.7% 증가하였다.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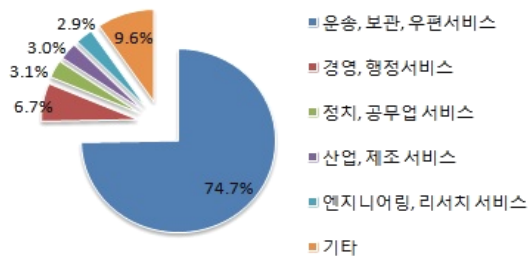


그림2. 2017년 WFP 조달 비율(서비스 분야)
자료: UNOPS(2018, pp161)

〈그림 2〉는 2017년도 WFP의 서비스 분야 조달 비율이다. 운수업이 전체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관련업 등 기타 서비스들이 나머지 25.3%로 나타났다. 운송, 보관, 우편서비스를 포함한 운

송 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8년도 WFP 산하 UNHRD는 93개국 35개의 파트너 단체에 긴급구호 물품과 장비를 발송하였는데, 관련 서비스의 규모는 4천만 달러에 달한다.(UNOPS, 2018)

우리나라는 원조공여국으로 지위를 변화하였고, 2015년 이후 5년간 식량안보 사업에 2,000만 달러 이상의 기여를 서약하였다. 2011~2012년과 2015년 집행 이사국을 수임하였고, 2019-22년까지 임기 집행 이사국으로 재선되었다.(외교부, 2018)

(2) UNICEF

UNICEF의 조달 규모 순위는 2017년 1위, 2018년 2위이며 조달금액은 2017년 3,428백만 달러(재화 2,338백만 달러, 서비스 1,090백만 달러)에서 2018년 3,486백만 달러로 17% 증가하였다.(UNOPS, 2019)

〈그림 3〉은 2017년 기준, UNICEF의 서비스 분야 조달 비율이다. 금융 및 보험, 건축 및 보수업, 경영 관련업, 연구 및 과학기반업, 기타 등 고른 분포를 보이며, 운송 분야도 14.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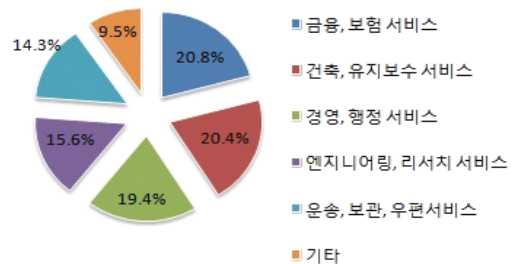


그림3. 2017년 UNICEF 조달 비율(서비스 분야)
자료: UNOPS(2018, pp149)

우리나라는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 서울에 사무소가 정식 개소되었다. UNICEF는 의약 조달에 있어 주요 기구인 동시에 코펜하겐, 상하이, 두바이, 파나마 등에 물류기지를 운영하며 타기관의 의약품 조달서비스도 대리하고 있다.

1)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2)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3)유엔조달국(UN Procurement Division, UNPD)
4)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5)유엔난민기구(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3) UNPD

UNPD의 조달 규모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3위로 나타났다. 조달금액은 2017년 2,746백만 달러에서 2,636백만 달러로 4% 감소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재화 분야는 1,123백만 달러, 서비스 분야는 1,623백만 달러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높다.(UNOPS, 2019)

〈그림 4〉에서 보듯이 2017년 기준, UNPD의 서비스 분야는 운수업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 및 과학기반업(13.7%), 건축 및 유지 보수 서비스(12.8%), 건축 및 보수업(9.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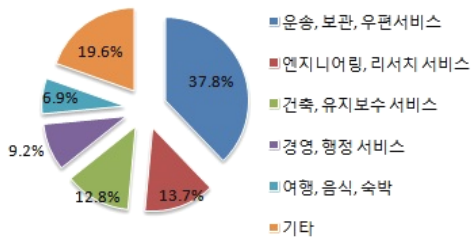


그림4. 2017년 UNPD 조달 비율(서비스 분야)
자료: UNOPS(2018, pp155)

(4) UNDP

UNDP의 조달 규모 순위는 2017년, 2018년 4위로 조달금액은 2017년 2,117백만 달러에서 2,146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7년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경영 관련업(28.2%), 연구 및 과학기반업(25.1%), 건축 및 보수업(15.9%)으로 나타났으며, 운송부분의 비중은 높지 않다.(UNOPS, 2018)

외교부(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UNDP TRAC(Target for Regular Resources from Core) 지원대상국에서 졸업하였고 집행 이사국으로도 진출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UNDP 정규직원 지원액은 기여국 중에서 14위 수준이다.

(5) UNHCR

UNOPS(2019)에 의하면 UNHCR의 조달 규모 순위는 2017년, 2018년 5위로 조달금액은 2017년 1,239백만 달러에서 1,100백만 달러로 11.2% 감소하였다.

2017년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경영 관련업(45.7%), 운수업(13.2%), 정치 및 행정업(9.8%), 건축 및 보수업(9.0%), 연구 및 과학기반업(6.9%)로 나타났다.(UNOPS, 2018)

제네바의 본부 및 130여 개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2001년 4월 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2) 유엔 조달 물류시설

UN Logistics Base(UNLB)는 1994년, 평화유지임무(Peacekeeping Mission)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물류 수요 증가함에 따라 이탈리아 브린디시에 설립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유엔 인도주의 기관의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전략적 배치 재고, 자재, 기술 및 조달 등의 물류지원과 글로벌 정보 통신 기술 지원과 행정, 관리과정을 포함한 훈련지원이다.

United Nations Global Service Centre (UNGSC)는 이탈리아 브린디시와 스페인 발렌시아에 위치한 유엔 평화유지 사무소로 UNLB와의 연계를 통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었다.

핵심 물류, 지리 공간, 정보 및 통신 기술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보장하며 주요 업무는 공급망 서비스, 현장 기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UNHRD 현황

(1) UNHRD의 역할과 거점지역

UNHRD는 WFP 산하 시설로 국제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긴급 상황에서 여러 파트너 단체들로부터 집하된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하여 효율적인 구호 활동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응급상황에서 각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지원팀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 여섯 개의 거점지역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창고는 재난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비용으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가 주요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처음 설립된 이탈리아의 브린디시를 모델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가나 아크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총 6개 지역에 허브(Hub)가 있다.

〈표 3〉은 UNHRD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시설의 소재지역과 지원 지역들이다.

표 3. UNHRD 운영 물류시설

국가	도시	지원 지역
이탈리아	브린디시	전 세계*
스페인	라스팔마스	가장 최근 설립 WFP 에볼라 지원 중점
파나마	파나마시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가나	아크라	서·중앙 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전 세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자료: UNHRD(2019) www.unhrd.org
 주: *전 세계를 지원 지역으로 함.

응급상황 발생 시, 각 허브에서는 권역별로 지원을 하며 브린디시와 두바이의 경우는 전 세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UNHRD는 수혜지역으로 32백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북동부 카리브 제도에 발생한 허리케인 피해 지원과 방글라데시에서 피난 중인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원이다. 그 외

에도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 페루의 홍수, 필리핀 마라위 전투, 소말리아-차드, 멕시코 지진, 이란-이라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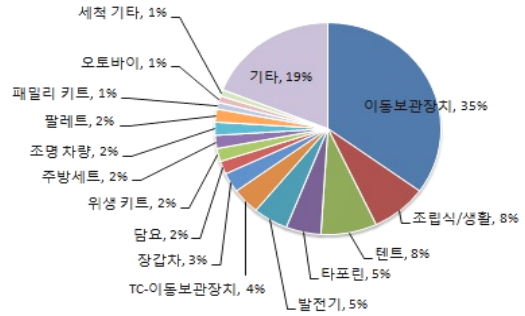


그림 5. 2017 UNHRD의 주요 조달 물품 15품목
 자료: UNHRD(2019) www.unhrd.org

〈그림 5〉는 2017년 UNHRD에서 가장 많이 조달된 물품 15가지이다. 텐트, 타포린, 위생 키트, 주방 세트, 담요 등의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4〉는 2018년 UNHRD의 주요 수원국과 지원 물품들이다. 예멘,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수원국에서 인접한 거점시설에서 조달 지원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세계 전역을 커버하는 허브센터(두바이, 브린디시)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4. 2018년 주요 지원품

수원국	주요지원품	지원 거점지역
예멘	영양제 운송물류 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두바이*
방글라데시	비상대피소 운송물류 서비스 영양제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콩고 민주공화국	헬스케어 서비스 운송물류 서비스 비상대피소	두바이* 브린디시* 아크라
인도네시아	캠프관리 비상대피소 운송물류 서비스	두바이* 브린디시* 쿠알라룸푸르

자료: UNHRD(2019) www.unhrd.org
 주: *전 세계를 지원 지역으로 함.

UNHRD의 조달은 파트너가 요구하는 핵심 품목을 최상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번에 처리하는 물량의 볼륨을 최대화하여 비용의 효율성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주요 수원국이며, 자연재해나 분쟁 등이 발생한 불특정 지역의 국가들도 대상이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Christian Aid에서는 2018년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중 규모가 가장 큰 재해 10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5>

표 5. 2018년 기후변화로 인한 10대 자연재해

지역	재해종류	피해액(달러)
미국	허리케인 플로렌스	170억
	허리케인 마이클	150억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캠프파이어 산불 울시	75억~100억 달러 15억~30억 달러
유럽	가뭄	75억 달러
일본	홍수(6월~7월)	70억 달러
	태풍 제비	23억~55억 달러
아르헨티나	가뭄	60억 달러
중국	홍수(7월)	39억 달러
	태풍 럽비아, 홍수	54억 달러
호주	가뭄	58억~90억 달러
인도 케랄라	홍수	37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가뭄	12억 달러
필리핀, 중국	태풍 망콧	10억~20억 달러

자료: Christian Aid(2018, pp4-5)

자연재해는 세계 전역에 걸쳐 발생하였고 피해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인 일본은 4위, 중국은 6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2. 한국의 유엔기구 참여 현황

UNOPS(2019)에 의하면 2018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조달시장 참여 비중은 전체 유엔 조달 규모의 0.85%로 35위에 해당한다.

<그림 6>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조달 참여 전체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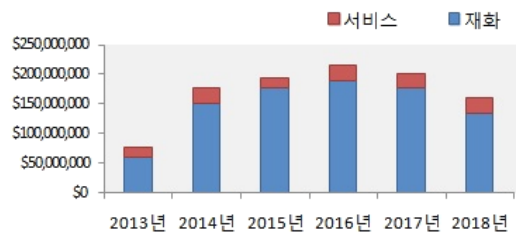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시장 참여 규모

자료: UNGM(2019) www.ungm.org

재화와 서비스 부분 중에서는 재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은 유엔기구별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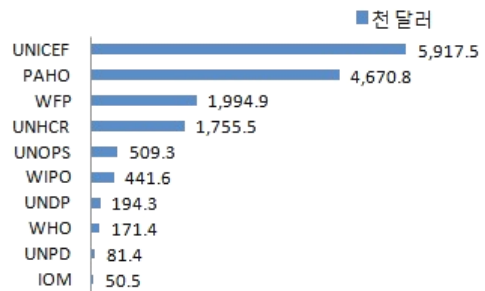


그림 7. 우리나라의 유엔기구 참여 현황

자료: UNGM(2019) www.ungm.org

3. 동북아시아국가의 유엔 조달시장 참여 분석

1) 유엔 정규분담금 분담률 현황

유엔 정규분담률은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외채 등의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산정된다.(e-나라지표, 2019)

〈표 6〉은 2019년 6월 기준, 각국의 유엔 정규부담금 분담률 현황이다.

표 6. 각국의 유엔 정규분담금 분담률 현황

	2016-2018년		2019-2021년	
	분담률(%)	순위	분담률(%)	순위
미국	22,000	1	22,000	1
중국	7,921	3	12,005	2
일본	9,680	2	8,564	3
독일	6,389	4	6,091	4
영국	4,463	6	4,567	5
프랑스	4,859	5	4,427	6
이태리	3,748	8	3,307	7
브라질	3,823	7	2,948	8
캐나다	2,921	10	2,734	9
러시아	3,088	9	2,405	10
한국	2,039	13	2,267	11
호주	2,337	12	2,210	12

자료: e-나라지표(2019) www.index.go.kr

미국이 22%를 분담하며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12.005%를 부담하여 직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다. 일본은 3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이어 11위에 랭크되었다.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2016~2018년 2.039%에서 2019년도는 2.267%로 상승하여 11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8〉은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부담률 현황으로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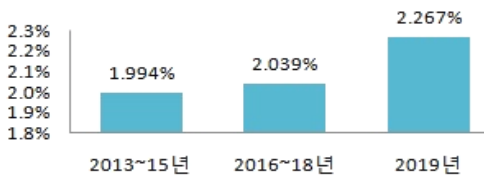


그림8. 우리나라의 유엔정규부담률 현황(%)
자료: 외교부 유엔사무국

유엔 정규분담금 외에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예산도 세계 11위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19,622만 달러로 예상된다.

〈표 7〉은 우리나라의 정규분담금과 PKO분담금을 포함한 유엔분담금 기여 현황이다.

표 7. 우리나라의 유엔분담금 기여현황

구분	2016-2018		2019	
	분담금(만달러)	분담률(%)	분담금(만달러)	분담률(%)
	5,240	2.039	5,340	2.267
PKO	14,890	2.039	14,282	2.267

자료: 외교부 유엔과(2019), e-나라지표(2019) www.index.go.kr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정규분담률은 유엔 전체 분담금의 2.267%로 세계 11위 수준(PKO예산은 세계 11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유엔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e-나라지표, 2019)

〈그림 9〉는 2018년 조달 규모별 공급 국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상위 9개의 국가가 전체 조달 규모의 3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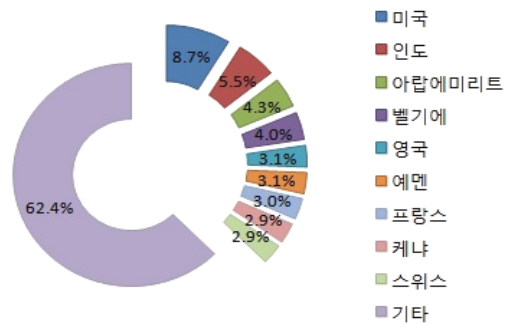


그림9. 2018년 상위 10개 조달국가(조달물량 기준)
자료: UNOPS(2019, pp6)

그 중에서도 미국은 8.7%로 1위를 기록하였는데, 가장 많은 유엔분담금을 부담하는 동시에 조달공급에도 참여하는 규모가 가장 크다. 경제 대국으로서의 명분과 실질적인 이득도 함께 얻고 있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상승할수록 유엔분담률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입지상승과 이미지 향상 효과 외에도 한국기업들의 조달사업 참여, 수주 확대, 유엔 관련 시설 유치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 경제적 내실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동북아시아 3개국의 유엔 기구별 참여

〈표 8〉은 2018년 동북아시아 3개국의 참여금액 부분 기구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2018년 동북아시아 3개국 UN기구별 참여금액 부문 (단위: 백만USD)

구분	한국	일본	중국
UNICEF	59.2	10.1	68.9
PAHO	46.7	-	-
WFP	19.9	21.9	2.9
UNHCR	17.5	37.2	11.8
UNOPS	5.1	21.4	2.1
UNDP	1.9	11.4	1.8
UNIDO	-	1.4	29.6
UNPD	0.8	1.3	25.6
합계	150.3	103.4	117.1

자료: UNGM(2019) www.ungm.org

유엔 기구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UNICEF, PAHO, WFP 순으로 참여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UNHCR, WFP, UNOPS 순, 중국은 UNICEF, UNIDO, UNPD에 많은 참여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UNHRD와 연관성이 높은(운송 분야의 비중이 높은)기구는 WFP, UNICEF, UNHCR으로 추려지는데, 이 3개 기구에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많은 참여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표 9〉는 동북아시아 3개국의 조달분류를 비교한 것으로 각 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기타 제조업 분야들이 반영되어 있다.

표 9. 2018년 동북아시아 3개국 조달분류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지역	조달분류	금액
한국	의약품, 피임약, 백신	9.50
	식음료 제품	1.95
	경영 및 행정 서비스	1.48
	의료기기	1.2
일본	편집, 디자인, 그래픽 서비스	0.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9.04
	식음료 제품	0.80
	운송, 보관, 우편서비스	0.54
중국	발전 기계	0.49
	편집, 디자인, 그래픽 서비스	0.47
	환경서비스	2.46
	경영 및 행정 서비스	2.41
	의료기기	2.26
	의약품, 피임약, 백신	2.06
	악기, 예술, 공예품	1.67

자료: UNGM(2019) www.ungm.org

우리나라의 주요 조달 품목은 의약품 및 백신, 식음료 제품, 관리 및 관리 서비스 순이며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일본은 자동차 및 부품, 식음료 제품, 운송과 보관 및 우편 서비스 순으로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운송 및 보관 관련 분야에서도 조달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환경 서비스, 관리 및 관리 서비스, 의료 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 내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중, 상품의 비중이 매우 높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유엔 물류 시설이 필요하다.

III. 한국의 UNHRD 유치 계획

1. 한국의 국제기구 유치현황

1) 한국의 국제기구 유치현황

외교부에 의하면 1999년 4개에 불과했던 국내 소재의 국제기구는 2017년에는 60개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10. 국내 소재 주요 국제기구 현황

기구 분류	기구수
정부간 국제기구 본부	3
유엔 및 국제기구 사무소(대표부)	9
지역기구 사무국	7
국제기구 관련기관	11
지역기구 관련기관	7
기타(준정부기구, 비정부기구)	15

자료: 경희대학교 유엔협회세계연맹(2019, pp88-90)

〈표 10〉은 국내 소재 주요 국제기구 현황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본부 3곳을 포함하여 사무소 및 기타 기구들까지 유치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과 인천(송도)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유엔 산하기관의 사무국 유치가 대부분이고, UNHRD와 같은 시설 관련 하드웨어 유치는 없다.

2) UNHRD 입지 조건

한국, 중국, 일본의 분담금 납부 규모와 조달 상품과 서비스들의 볼륨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에도 참여도에 부합하는 물류 지원시설의 필요하다. 물류센터 입지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항공, 해상, 육상 운송이 가능한 시설, 보관과 관리가 가능한 보관시설 혹은 부지, 관리 장비와 인력이 필수적이다.

표 11. UNHRD 운영 물류시설

국가 도시	시설(m ²)				훈련 장소
	창고	야적장	냉장·냉 동창고	사무실	
이탈리아 브린디시	6,600	3,500	-	1,020	950
스페인 라스팔마스	1,928	2,430	60	90	100
파나마 파나마시티	7,273	-	94	152	-
가나 아크라	3,600	1,400	540	450	400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14,500	5,000	3,662	2,880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5,000	2,000	1,234	921	105

: UNHRD(2019) www.unhrd.org

〈표 11〉에서 보듯이 기존의 UNHRD 창고들은 최소 1,928m²~최대 95,000m² 규모의 창고시설과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야적장, 냉동·냉동 창고 및 훈련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항시설 내, 혹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8개의 국제공항과 14개의 국가 관리 항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로가 다양하고 빈번하며, 항공과 해운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는 있는 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항공, 해운, 육상 편으로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24~48시간 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물품 보관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자연재해의 가능성이 작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2. 한국의 인도적 지원 추진현황 및 방향

1) 한국의 인도적 지원 추진 현황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를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림 10〉은 2014~2017년 한국의 GNI 대비 전체 전체 ODA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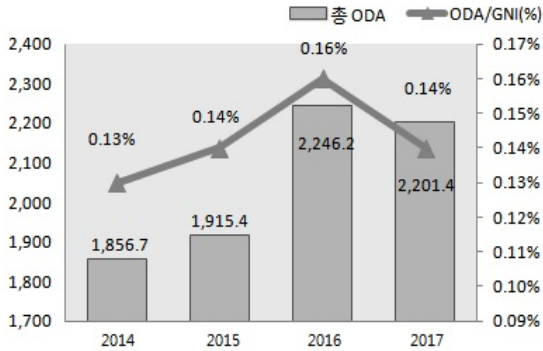


그림10. 한국의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순지출기준, 백만 달러)

자료: 대한민국 ODA통합홈페이지(2019) www.odakorea.go.kr

2017년도 0.14%로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15위를 차지하였고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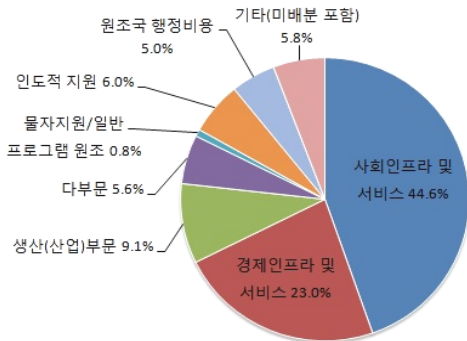


그림11. 2017년 분야별 ODA 지원비율 (순지출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통합홈페이지(2019) www.odakorea.go.kr

〈그림 11〉은 2017년 분야별 지원 내용이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중점 지원이 되었다.

OECD의 지역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리

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 아프리카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 한국의 인도적 지원 추진 방향

2016년 한국은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선진 모범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다자개발기구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확대 필요성과 지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수행주체도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격에 맞는 인도적 지원추진 및 인식 제고, 분야별 중점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한 ‘비용대비 가치(value for money)’ 극대화,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평화구축 활동 간 연계 가능 분야 지원, 통일 지향적 인도적 지원 모색이다.

국내외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UNHCR, UNICEF, WFP, OCHA 등 핵심 인도지원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인도적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내의 인도적 지원 의제를 선도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인도적 분야 단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생태계를 육성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NGO 간 협력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파트너십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전략추진에 앞서 추진 연도와 분야별 중핵목표와 세부 이행방안 등을 통합하

고 인도적 지원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인도적 지원의 대상을 선별할 때에는 기준을 개발 경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외교적 필요성과 전략적 필요성, 효과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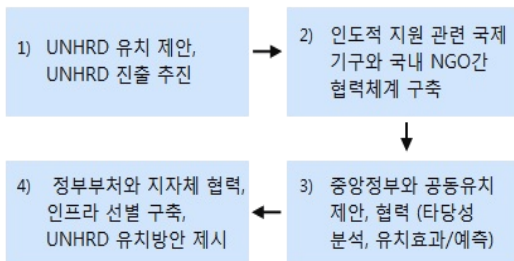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의 인도적 지원 추진 방안
자료: 저자작성

한국의 인도적 지원 추진 방안을 <그림 1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고급인력들이 국제기구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법령·체제 정비와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3. UNHRD 거점 선정 요인 분석

1) 유치환경

UNHRD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산지원 조건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13> 인천발전연구원(2010)에 의하면 국제기구 유치과정은 유치 제의·신청·승인, 제안서 제출·심의·통과, 협정안 합의·심의·체결, 협정서 통과·비준, 분담금 납부, 사무실 개소의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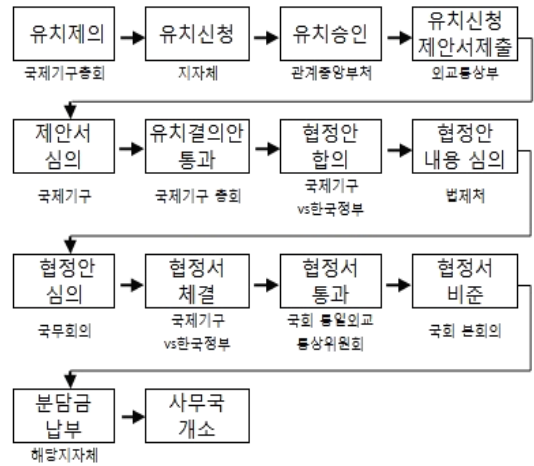


그림 13.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과정
출처: 인천발전연구원(2010, pp24)

국가 사업화가 확정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Korea)’의 경우는 2014년 기획을 시작으로 2015~6년 타당성 개발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년 개최 타당성을 조사한 후 국가 사업화가 확정되었다. 향후 유치 활동, 신청 절차를 남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주최로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전략적 주제개발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장기간 단계별로 추진해야 과제가 많으므로 꾸준히 관련기구들과 접촉하고 기관들과 협력하여 유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내외 홍보와 치밀한 유치 준비를 하여 경쟁 도시들에 우위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발전연구원(2017)에 의하면 국제기구 유치는 국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고용 유발효과 등의 국가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2010)에서는 ‘국제기구 집중지’ 조성 시에는

상주인원 2만 명 가정시 약 6조 원의 소비지출증가, 약 1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해외의 인도적 지원 물류협회 (Humanitarian Logistics Association)와 교류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2) SWOT분석

UNHRD 유치 선정에 대한 평가를 SWOT 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지닌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1)강점(Strength)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엔부담금 분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UNHRD와 관련한 UNICEF, PAHO, WFP 총 참여금액이 한국은 125.8백만 달러, 중국 71.8백만 달러, 일본 32백만 달러로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참여금액이 가장 높다.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지진 이후 중국과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8년 재해로 입은 피해 금액도 일본과 중국이 4위와 6위 규모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래에 지진이 내륙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빈도수나 강도가 낮아 안전한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인천공항은 2019년 스카이트랙스사 주관으로 개최된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최고 환승 공항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 인프라와 관리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World Shipping Council에 의하면 부산항은 2018년 기준, 6위의 항만물동량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항의 장점은 중국의 경쟁항만들과는 달리 해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절적

위협요인도 낮고 풍부한 항만물류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과 항공물류의 연계가 용이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유엔 조달시장 입찰 참여 증가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World EXPO 2030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계획구역에 착수하고, 중앙유치위원회 출범 등 유치신청 준비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 이행지원과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증액과 정책 강화, ODA에 대한 종합전략 강화, 사업 확대도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약점(Weakness)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기구들이 유치되었고, 지방에서 유치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자체별로 유치 전략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주요 약점 요인이다.

내부 전담조직체제와 유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가 미비하고 관리기관과 지자체 간의 행정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며 유엔 산하기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UNHRD에 대한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유치 제안과 타당성 검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물류 전문가가 없고 전문가자격증이 국내에는 활성화되지 않아 긴급구호대 같은 소수의 참여로 한정되어 있다.

국가적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훈련센터가 없다. 해외의 경우,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 물류 협회에서 훈련프로그램 운영과 포럼 개최를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다.

(3)기회(Opportunities)

유엔 조달 관련 기구(UNICEF, PAHO, WFP)에 대한 한국의 참여금액이 높은 편이며,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와 북미 관계의 비핵화 협상이 우호적인 분위기에 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과 IMO 사무총장 선출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기회 요인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 개최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그에 따른 국제적 인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FAO의 세계 수산대학 설립 준비 등 국제기구 유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지니는 상징성과 2019년도 세계 11위 규모의 유엔 정규 분담금 5,340만 달러, 분담률 2.267%로 유엔에서의 참여도가 높다. PKO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의 주요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가 증대되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World EXPO 2030 개최와 정부의 신남방 정책 강화 등을 통해 한국국민의 국제기구진출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적극적으로 인도주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인도적 지원 증대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4)위협(Threat)

UNHRD 신규시설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공감대가 부족하여 회의적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화해 모드였던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정한 기류로 흐르고 있으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교착상태로 접어

들었다.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분쟁으로 동북아의 외교적, 경제적 갈등과 교류 단절이 불가피하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UNHRD 추가지정에 대한 유엔사무국의 정책 기초를 예단하기 어렵다.

유치 제안에 대한 외교부와 관련 유엔 기관과의 외교적인 노력 부족,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한국 유치에 대한 비협조, 기존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시설 외에 추가로 아시아 지역의 UNHRD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인의 유엔기구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UNHRD와 관련하여 우리의 유치 입장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촉 채널이 없다. 신규 설치를 논할 한중일 협력 공식 채널도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정규부담율, UNHRD관련 참여비중증가 (한중일삼국 증가상승) -자연재해, 재난대비 지리적 안정성 -우수물류 인프라 시설, 풍부한 물류 배후단지 -국제기구 유치관심 고조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증액과 정책강화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국제 NGO및 협회 협력 부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전담조직체계, 관련규정 미비 -UNHRD 관련 정보부재 -유엔국제기구유치관련 제도, 재정적 기반 미비 -유치경험 부족, 유엔 진출관련 대학, 연구기관 부족 -관련 기관 네트워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남북 관계 평화무드 -국제기구에의 한국인수장진출 확대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국제공조 동참, PKO 적극 참여, 유엔의 주요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 -국제기구 진출기반 강화와 정부의 인도적 지원 증대 모색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공감대 부족 -한반도 정세불안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유치비협조 -주변국과 유치경쟁 심화, UNHRD추가지정에 부정적기조, 허브지역간 공정성 시비 -협력 공식 채널 부재

그림14. SWOT 분석

자료: 저자작성

3) UNHRD 거점 선정

유엔기구의 특성상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다. UNHRD의 선정요인은 재난이 빈번한 지역과 인접한 국가 중,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인프라 환경 등 운영과 관리의 이점을 고려한다.

긴급대응이 필요한 곳으로 항공, 해운, 육상 편으로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24~48시간 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 해상, 육상 운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관과 관리가 가능한 시설 혹은 부지, 운영과 관리 인력이 필수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경우는 국제 인도주의 도시⁶⁾(International Humanitarian City, IHC) 내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공항과 인접한 항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각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요인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IHC 내에 소재한 다른 유엔기관과 여러 분야의 NGO들과의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UNHRD의 각 거점 허브들은 인접한 지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브린디시와 두바이는 전 세계를 지원하고 있다.

최초 설립된 브린디시는 긴급구호와 대응 지원의 최일선에서 모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WFP의 에볼라 긴급·중점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라스팔마스는 에볼라 발생 지역인 기니(Guinea)로 긴급 해상수송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환적과 중간지역에서의 지원지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6) IHC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와 대응을 목적으로 조성된 글로벌 허브로 물류, 연구 및 미디어 등 분야의 유엔기구, NGO, 정부 간 기구 등을 회원으로 하는 독립 인도주의 자유지역으로 Al Makroum 공항과 Jebel Ali 항구 인근에 위치한다.

아크라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을 지원하며 코토카(Kotoka)국제공항 내에 위치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도적 지원 물품보관, 운송,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파나마시티는 증가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재난과 긴급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아시아지역을 주로 지원하며 긴급물품 조달, 보관, 수송 외에 긴급 조달과 대응 지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4) UNHRD 유치 파급효과

UNHRD 한국 유치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다.

국제기구 유치 효과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UNHRD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해당 지역의 소비와 지출을 증가시키고 물류 관련 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기존 물류 시장과는 별도로 조달 물류와 특수 국제물류 시장의 개척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되는 긴급 구호 물품의 공급과 보관, 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시간과 비용에서도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유치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인재들의 인식 전환을 촉진하고 유엔기구와 관련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인지도는 인재들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으로 진출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늘어나는 고용수요에 맞춰 분야별 전문 인력양성과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해외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국제기구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필요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UNHRD 물류센터는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그 자체가 유엔 산하기구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인도적 지원 센터이다. 신규 설치를 제안하고 유치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종사자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고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4. UNHRD 유치전략

전술한 유치환경과 SWOT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유치전략에 관한 SO, ST, WO, WT 세부전략과제를 <그림 15>와 같이 도출하였다.

<p>S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무드, 정부의 인도적 지원정책 강화, UNHRD 한국 유치 공감대 형성 -PKO적극 참여, 주요 활동에 대한 재정기여 증대, UNHRD 신규 유치관련 타당성 기회 -지리적 안정성과 우수 물류 인프라 접목 -한국인의 유엔기구 진출확대, 국제기구 유치 관심 높음 	<p>W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활동 재정 기여 증대, 네트워크 확대 -인도적 위기대응의 국제공조 동참, NGO 협력강화 -국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전담조직과 관련 조례 제정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확대, 관련기관 유치경험 공유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추진,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강화, UNHRD 유치 연구 필요
<p>S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영입, 관련기관과 협조적 관계 구축 -한국의 유엔분담을 증액과 역할증대로 한반도 불안 해소 -인도적 위기 국제공조에 적극동참 -동북아시아의 UNHRD 추가 지정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p>W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HRD유치 제안관련 유엔기관의 부정적 의견 대비, 정책 연구 -동북아시아의 UNHRD 추가 지정 관련 타당성 논란 대비, 관련 NGO와 협력 -주변국가와 유치경쟁에 유인 경력자 활용, 유치제안 홍보 -한중일 재난관리협력 기본전략 활용, 타당성 근거 마련

그림 15. UNHRD 한국 유치 전략과제
자료: 저자작성

1) 역량 확대전략(SO)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UNHRD의 한국 유치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PKO 참여와 유엔의 주요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 증대되고 있다. 이는 UNHRD 신규 유치에 대한 기회를 의미한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지리적 요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UNHRD 시설을 유치하기에 적합하다. 항공, 해상, 육상의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외에 설립된 국제기구와 유엔기구로의 한국인 진출도 확대되고 있고,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므로 UNHRD 유치제안이 현실화 할 수 있다.

2) 선택집중전략(ST)

유엔 및 국제기구의 경력자들을 실무자와 고문으로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관련 유엔기관에 관한 정보를 얻고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한국의 유엔분담금 증액과 유엔에서의 역할 확대로 한반도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UNHRD 유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인도적 위기관련 국제공조에 참여하여 자연재해가 대형화하고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UNHRD 추가 지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유엔기구 실무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지리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한국 유치 관련 협조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중일의 비정치적 이슈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인도주의 물류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동북아시아의 실무자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일본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삼국 간 긴급구호 공동훈련을 실시하여 UNHRD 신규 유치에 대한 공감대와 우호적 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3) 우회전략(WO)

유엔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공조에 동참하도록 하며 해외 NGO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전담조직과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한국인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유엔 산하기관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FAO 세계 수산대학 설립 추진 경험을 활용하여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UNHRD 유치 관련 연구단체가 지정되어야 한다. World EXPO 2030 개최와 정부의 신남방 정책 강화로 해외 인도주의 물류 포럼 개최 및 공동 훈련은 주관함으로 국제적인 인도주의 물류 전문가를 육성한다.

2019년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으로 인도적 지원의 해외 단체와 협력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자격증 도입으로 NGO 단체와 협력 강화한다.

4) 방어전략(WT)

UNHRD 유치 제안과 관련한 유엔기관의 부정적인 기조를 대비하여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 논란 가능성에 대하여 해외 NGO와 협력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주

변 국가들과의 유치 경쟁에 대비하여 인적 네트워크, 기관 근무 경력자들을 활용하여 유치 제안과 홍보를 강화한다.

2017년 제5차 한·중·일 재난 관리 기관장 회의에서 채택된 「재난 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활용한다. 성명의 주요 내용인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3국 공동 행동의 필요성 공감과 세계 재난 경감 기본전략인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의 지속 이행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UNHRD 신규시설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한다.

IV. 결론

세계적으로 지진, 쓰나미,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협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급구조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UNHRD의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적 지원에 긴급 응대를 할 수 있는 신규 UNHRD 시설이 필요하다.

전 세계 여섯 곳의 허브 지역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규 설치계획과 관련한 정보는 없다.

한국은 해외 긴급구호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긴급구호를 선진화하려는 개선 노력이 시작되었다.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법령에 명시되고 국제 개발 협력의 중장기적 정책에 민관의 상시 협력체계의 구성이 포함되는 등 민관 협력이 제도화되는 단계에서 한국이 직접 긴급구호

물류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신규 UNHRD 설치 제안이 필요하다.

한국 유치전략 과제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확대전략(SO)은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 및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강화로 UNHRD의 한국 유치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엔의 주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증대로 UNHRD 신규 유치와 관련한 타당성이 부여된다.

둘째, 선택집중전략(ST)은 유엔 및 국제기구의 근무 경력자들을 영입하여 관련 유엔기관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북아시아에도 UNHRD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셋째, 우회전략(WO)은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국제적 인지도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UNHRD 유치 전담조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해외 NGO 및 협회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방어전략(WT)은 아시아 지역의 UNHRD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대륙별 위치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비하여 외국의 UNHRD 유치사례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동북 아시아지역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 전략들을 활용하여 한국의 UNHRD 유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내의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에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UNHRD 한국 유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UNHRD 유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물류 산업의 변화와 유치 효과를 연구하고 외교통상부의 다자협력·인도지원과 협력하여 OCHA 등 인도적 지원 기구에 동북아시아 UNHRD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다.

셋째, 유엔에 진출한 한국인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유치 적합성을 홍보하도록 한다.

넷째, 인도적 지원 물류창고 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다섯째, 정부 유관기관과 NGO 단체와의 TF팀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UNHRD 한국의 선정 후 파급 효과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외교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경제적 효과로는 소비와 지출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 조달물류와 국제물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긴급 구호 물품의 생산, 공급, 보관, 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인재들의 국제화 촉진, 유엔기구와 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과 고급 인력의 유엔기구 진출의 기회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정치, 외교적 측면으로는 유엔 산하 기구 종사자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의 기회로 지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물류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고취와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UNHRD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계량화된 자료가 전혀 없어 정성적 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되고 한국인들의 진출이 빈번해지는 추세이다. 2019년 7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과 관련하여 물류 시설 한국 유치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여 더욱 계량화된 유치 전략과 유엔 물류 시설 분석, 해외의 인도주의 물류 포럼 및 물류 훈련 연구, 유치입찰 참여 등을 추후 논문 연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경희대학교 유엔협회세계연맹(2019), 행복도시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pp88-90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2019), '인도적지원' 이란, <http://humanitarian.koica.go.kr/c1/sub5.jsp>

대한민국 ODA통합홈페이지(2019), '13~' 17년간 GNI대비 전체 ODA규모, '17년 분야별 ODA지원 비율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2/L03_S02.jsp

부산광역시(2019), 2030 부산월드엑스포 <https://www.busan.go.kr/expo/expo0101>

부산발전연구원(2017), 해양분야 국제기구 부산 유치 전략 마련, pp4-5

신석현(2014),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외교부(2018), 2018 유엔개황, pp151-152

외교부(2019),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 제3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견안건(제33-3호)

외교부 유엔과(2019), 2019년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e나라지표(2019), 유엔 정규 및 PKO 분담금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6

인천발전연구원(2010),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 pp24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보도자료(2017), 한중일 3국이 함께 동북아 재난 대응에 나선다, 2017년 9월 7일

Christian Aid(2018), Counting The Cost: A Year of Climate Breakdown, pp4-5

IHC(2019), <https://www.ihc.ae/>

UNOPS(2019), 2018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pp4-6, 19-21

UNOPS(2018), 2017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pp13-19, 76-85, 109, 143-164

UNGM(2019), Procurement data by supplier country, https://www.ungm.org/Shared/KnowledgeCenter/Pages/asr_data_country

UNHRD(2019), Year in Review 2018, <https://unhrd.org/yir/>

UNHRD(2019), Year in Review 2017, <https://unhrd.org/yir/2017/#5>

UNLB(2019), UNLB(UNGSC), <http://www.unlb.org>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신석현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산하의 인도적 물류센터 (UNHRD)를 동북아시아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는 목적이다.

관련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없지만, 유엔 시설 유치에 대한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물류 관련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치 효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유엔 관련 비즈니스 확대에 예상된다.

유엔조달연감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의 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한국의 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유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유엔 물류센터 유치 방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동 유치 제안,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한국 유치에 관한 타당성 논리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엔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세계식량계획, 해외 긴급구호, 국제기구 유치,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 유엔조달연감